

#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남 태 우(Tae-Woo Nam) \*

황 옥 경(Ok-Gyung Hwang)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1950~60년대에 심리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일반불안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1986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였다. 더불어 도서관불안의 개념과 증상, 조사연구불안과의 관계,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 도서관불안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symptoms of library anxiety, the relationship among the library anxiety, the research anxiety, and the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decrease of library anxiety through the review on literatures on the library anxiety of which the concept was first presented in 1986. The studies on the library anxiety till now had been focusing on the under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in America, so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and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xiety scale for the students' efficient use of the library in Korea.

키워드: 불안, 도서관불안, 조사연구불안, 컴퓨터불안, 정보활용능력,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불안척도.  
anxiety, library anxiety, research anxiety, computer anxiety, information literacy, bibliographic instruction, library anxiety scale

- 
-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hmirim7@dreamwiz.com)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9월 11일

## 1. 서론

도서관불안이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불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도서관불안이라는 개념이 문헌정보학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해는 1986년으로 이후 2004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이론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도서관불안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걸쳐 심리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불안의 개념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입하여 도서관불안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연구자는 Mellon(1986)이었다. 이후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대상으로 도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도서관불안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서관불안의 여러 요인들이 밝혀졌으며 도서관불안과 도서관 이용교육 간의 유의미한 관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일반 불안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동시에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도서관불안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일반 불안 이론

도서관불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불안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불안 이론에 대한 고찰은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불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두려움 혹은 이와 유사한 감정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상태” 혹은 “불확실함과 무력감”(Endler & Edwards 1982) 등으로 정의된다. 불안은 생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 초반에는 철학적 혹은 종교적 불안이, 19세기 말에는 생리적 불안이, 20세기 초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불안이 강조되었고(한창환 2001) 1950년~60년대부터는 심리학적 측면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불안 증상은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증상으로는 심장박동의 증가, 호흡 곤란, 혈압 상승, 근육 긴장, 체온 하강, 피부탄력감소, 소화불량, 입속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 등이 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증상으로 무섭고 위협을 느끼는 증상, 자괴감과 민성, 공황, 예기불안, 내적 정신적 공포,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 집중 곤란,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

적당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강박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신경증적 장

에, 각종 정신병적 장애, 인격 장애 또는 기질적 신체질환 등 심각한 병적 수준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불안이 심해지면 자기신뢰감이나 자기존중감이 부족해지고 공격적이 되며, 식욕부진, 수면장애,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와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불안으로 인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열등감 속에서 대인관계에 갈등을 겪는 등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정서인 불안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실존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일반불안의 본질과 관련 이론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Freud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억제와 불안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불안은 압박한 위협에 대한 경계신호라고 본다.(프로이트, 황보석 역, 1980) 위협이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용납하기 어려운 내적 욕구가 의식화되고 실행되려고 할 때 불안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즉 자이는 이러한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자기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의식적인 욕구를 억압하여 제대로 처리하면 불안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의 입장에서 보는 불안은 무의식적 충동의 위협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대리학습을 통해 학습된 반응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통해 불안을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

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두 긍정적일 때에는 상황에 대하여 생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높은 야망을 지니며,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자아가 고통이나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 두려움이나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면 무효능감을 느끼게 되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남에게 거부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여 불안해진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자아개념이 위협을 받을 때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허창범, 2000) 즉, 인간은 현상적 자기와 경험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각된 자기와 현실적 경험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부조화 상태를 경험한다. 자아개념이 부정확할수록 자아지각과 상충되는 경험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복해서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려고 한다. 자아개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등의 부인기제를 불러내게 되는 것이다.

실존주의 시각에서의 불안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키에르케고르, 임춘갑 역, 1999) 인간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하므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즉 불안은 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반드시 정신병리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장을 향한 강한 동기적인 힘일 수도 있다. 또한 불안은 위협에 대한

반동 형식이다. 자아의 실존이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은 자신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한 결과를 점차 인식하게 됨에 따라 불안을 경험하게 되므로 불안은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Cattell과 Scheier(1961)는 특성이론의 입장에서 부적응을 갈등모형으로 설명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욕구가 생겼는데 장애를 받으면 개인은 그 장애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따라서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신경증을 초래하는 갈등과 불안 상태를 유발한다. 이처럼 불안은 신경증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다. 또한 이들은 특성과 상태를 구별하여 어떤 개인들은 만성적으로 불안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의 성질에 따라 변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pielberg(1977)는 상태-특성이론의 입장에서 상태 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태 혹은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상태 불안은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주관적인 감정이다. 객관적 위협과는 상관없이 일단 어떤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위협이 내재된 환경이거나 긴장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상황을 위협적이라고 지각하지 않는다면 상태 불안의 강도는 비교적 낮아진다. 한편 특성 불안은 불안 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 성향으로 설명된다. 즉 자극 상황에 대해 지각하는 위협의 정도나, 그러한 위협에 대해 상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 특성불안은 과거에 나타났던 상태 불안 빈도나 강도 및 미래에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확률에 있어서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며,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위험성이나 위협을 지각하고 또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더 강한 상태 불안을 일으켜 반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Sarason(1980)은 방해모형이론의 입장에서 시험 불안의 연구를 통해 불안의 효과를 설명하는 대안법을 제시하였다. 시험불안이 심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받게 된다. 이러한 방해적인 생각 때문에 걱정과 자아 편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혹 그 상황을 조절할 수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패배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자기편견이 심한 사람은 사상을 지각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서를 일으킨다. 그의 이론은 방해하는 생각 및 반응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불안이란 위협적이라고 지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본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과제를 하는 중에 적합한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의 초기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잘못 반응하기 쉽고, 걱정과 강한 정서가 결합하여 과제 수행을 더 힘들게 한다. 결국 불안이 커지면 과제 정보처리 및 과제 수행능력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불안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일반불안이론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도서관불안은 일반불안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제시되었으나(Jiao and Onwuegbuzie 1998) 상기의 일반불안이론은 일정 수준 도서관불안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도서관불안

1986년에 도서관불안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이래 2004년까지 약 20년 동안 수행된 도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3.1 개념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이다. 당시 Mellon(1986)은 초급작문시간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받은 느낌에 대해 글을 쓰게 하여 2년 동안 6,000명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뒤 이에 대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5~85%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헤매는 느낌, 무력감, 혼란,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를 도서관불안이라고 칭하였다. 도서관불안의 원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도서관의 규모에 위압감을 느낌.
- ②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 ③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함.
- ④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

이 연구를 계기로 대학에서는 도서관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탐색 전략 및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도서관 불안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Mellon의 이 연구는 도서관 환경 연구에 정성적 조사연구를 응용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설에 기반을 두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이에 도서관 불안이 타당성 있는 이론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ostick(1992)은 5개 범주에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로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를 개발하여 도서관불안을 정량화하였다. 5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으로 인한 장벽: 사서는 위협적이고 접근하기 어렵고,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바빠 보인다는 느낌.

② 정서적 장벽: 도서관에서 혼자라는 느낌,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③ 편안함: 도서관에 있으면 안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

④ 도서관에 대한 지식: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⑤ 기계적인 장벽: 도서관 내 복사기, 출력기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것.

상기 다섯 범주는 도서관불안 전체 변량의 51.8%를 설명하였는데 이 중 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25.4%를 보임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의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서적 장벽으로 8.0%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일반불안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따른다면 실제로 사서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불쾌한 경험을 하였거나 이러한 경험을 대리 학습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사서가 바빠 보인다가거나 근접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으로 인해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그렇다면 직원으로 인한 장벽은 앞서의 Bandura(1977)가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다른 이에게 즉 사서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의 결여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정서적 장벽 역시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기효능감의 결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Onwuegbuzie(1997)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6개 범주를 제시하였다.

- ① 대인불안
- ② 인지된 도서관 능력
- ③ 인지된 도서관 편안함
- ④ 위치 불안
- ⑤ 기술적 불안: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⑥ 자원 불안: 검색한 자료가 도서관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의 범주들을 앞서 Bostick이 제시한 범주들과 비교하면 대인불안은 직원과의 장벽, 인지된 도서관 능력은 정서적 불안, 인지된 도서관에서의 편안함은 편안함, 위치 불안은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술적 불안은 기계적 장벽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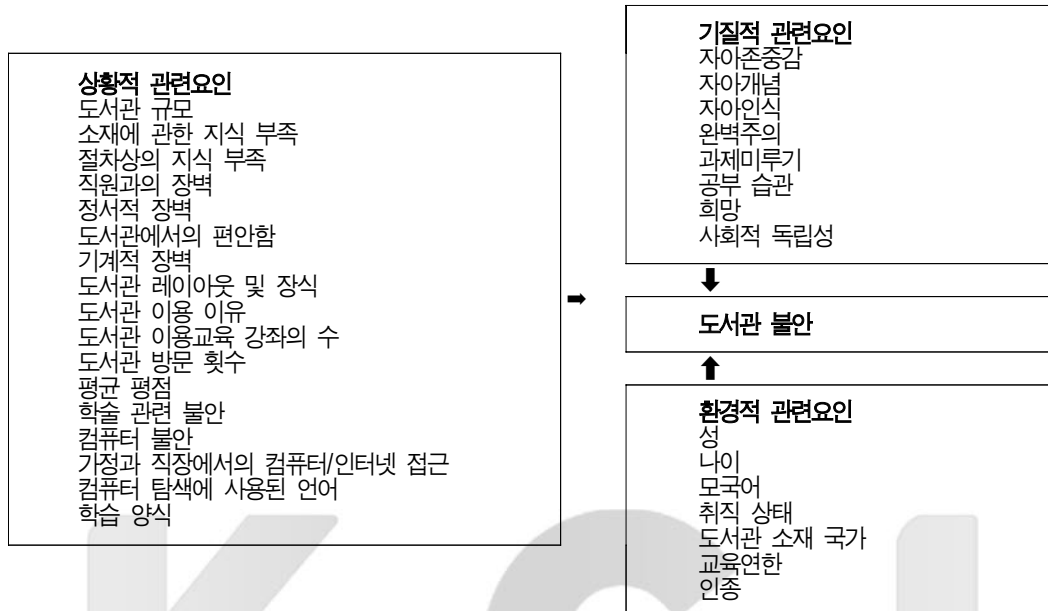
Jiao and Onwuegbuzie(2001)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장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장벽, 직원과의 장벽, 편안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상기의 Bostick과 Onwuegbuzie가 제시한 범주 중 기술적 불안은 컴퓨터불안(computer anxiety)과 관련이 된다. Maurer et al.(1984)의 정의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생각할 때의 두려움 혹은 우려가 바로 컴퓨터불안이다. Bostick의 연구에서는 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가장 높았던 반면 Jiao and Onwuegbuzie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Bostick의 연구가 이루어진 1992년도에 비해 Jiao and Onwuegbuzie의 연구가 이루어진 2001년도에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컴퓨터불안의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2년에 개발된 Bostick의 도서관불안 척도는 이제 컴퓨터 사용의 증가라든가 도서관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도서관불안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 3. 2 요인

Onwuegbuzie(1997)는 도서관불안 역시 Byrd(1982)가 제시한 수학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관련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림 1〉 도서관 불안 관련 요인의 개념도

출처: Anthony J.O. et a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41.

기질적 관련요인이란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의 내재적 요인을 의미한다. 상황적 관련요인은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적 관련요인은 기질적 요인과 달리 개인의 외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관련요인이 도서관불안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상기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관련요인들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불안의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 Jiao et al.(199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모국어, 평점, 취업상태,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 이용 목

적 등의 8가지 변수가 도서관 불안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도서관 이용 목적의 경우, 도서관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온라인/컴퓨터 색인 이용, 도서관납, 논문 탐색, 과제물에 필요한 책이나 논문 입수, 수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구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반면, 도서관불안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할 정도로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8가지 변수 중 모국어의 경우와 관련하여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해외유학생인 경우에 특히 도서관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

서도 제시되었다. 그 중 Onwuegbuzie and Jiao(1997)와 Jiao and Onwuegbuzie(2001)에서는 상당수 유학생들이 미국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잘못된 신념과 신화를 갖고 있어 이러한 신념과 신화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이란 정보와 정보원을 찾는 곳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 성취에 있어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학생들은 도서관의 방대한 정보와 정보원에 대해 압도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도서관불안의 기질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Jiao and Onwuegbuzie(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도서관불안과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도서관불안은 일반적인 불안의 특징과 관련이 없으며 그 자체가 별도의 타당한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는 1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인식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Jiao and Onwuegbuzie 1999b)에서는 인지된 학술능력, 지적능력, 창의력, 사회적 수용과 연관하여 낮은 자아인식을 보이는 학생들은 정서적 장벽과 도서관에서의 편안함과 관련하여 높은 도서관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완벽주의나 자아인식 등의 기질적 요인은 앞서 언급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혹은 인본주의에서의 자아개념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상기 고찰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상기의 관련 요인과 도서관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기질적 요인, 상황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대상자의 요인들과 유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도서관불안과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인지 등과 관련한 연구가 국내 도서관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3 증상

도서관불안이 높은 학생의 경우 긴장, 공포, 불편함, 부정적인 자멸적 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며(Kuhlthau 1988, 1991), 표지판이나 지도를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은 채 탐색을 비교적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이 연구결과로 제시되었다(Keefe 1993; Kuhlthau 1988, 1991). Onwuegbuzie(1997)는 도서관불안으로 인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료 수집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도서관불안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서가를 둘러보는 데만도 상당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nwuegbuzie 1997a),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집으로부터 피신해온 인식처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Jiao and Onwuegbuzie 1999a).

도서관불안 증상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을 때 혹은 도서관을 방문하려 가는 중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 및 시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Jiao and Onwuegbuzie 1997). 이런 측면에서 도서

관불안은 앞서 언급한 Spielberger(1977)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이론 중 상태불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Mech and Brooks(1995, 1997)는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 수준과 특성불안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iao and Onwuegbuzie(1999a)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서관불안은 상태불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불안 증상을 보이는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는 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도서관불안은 상황제한적인 기질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불안과 관련한 증상으로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신기술의 학습을 거부한다든가, 마지막 순간까지 과제수행을 미룬다든가, 키를 잘못 눌러 데이터를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컴퓨터 조작에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 특히 과거 컴퓨터로 인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컴퓨터를 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이 불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앞서 고찰한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일반불안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다.

상기 고찰 연구 결과들이 제시한 도서관불안 증상들은 도서관불안이 결국 도서관에서의 조사 연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와 이의 해소 및 감소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조사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Onwuegbuzie(1997a) 및 Jiao and Onwuegbuzie(1999a)의 연구결과를 보면 도서관불안의 해소 및 감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을 조사연구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싶은 친근한 장소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4 정보활용 능력과의 관계

도서관불안과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서 Kuhlthau(1988, 1991)는 도서관불안이 결국 정보활용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여러 단계의 정보탐색과정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보탐색과정의 초기단계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불편함과 불안을 야기하면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서 일반 불안 이론에서 고찰한 Sarason(1980)의 방해모형이론에 입각하여 도서관불안이 정보처리 및 과제수행을 행하는 데 있어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Jiao et al. (1996) 연구에서는 학생이 수강한 도서관 이용교육 강좌의 수가 도서관불안의 수준과 미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leveland(2001)의 연구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신입생으로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보다 도서관불안의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Battle(2004)은 노스텍사스대학의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강의에 등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그룹과 통제그룹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그룹과 통제그룹의 사전 도서관불안 측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그룹에만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시행한 이후 측정된 도서관불안에서는 두 그룹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도서관불안 해소 및 감소에 효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Zahner(1993)는 도서관불안 감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는 사서가 되어야 하고 탐색전략, 목표설정, 모니터링 등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불안과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도서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 향후 국내 연구방향 제안

지금까지 일반불안이론 및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도서관불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조사연구불안(Research Anxiety)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란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복잡하면서도 구조적인 과정이다. 조사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것이 문헌조사이고

바로 이 과정이 도서관이 광의의 조사연구 과정 중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이는 최종 연구결과물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불안은 도서관에서의 조사연구불안(Library Research Anxiety)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 조사연구불안이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 혹은 정보원에 대한 탐색을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데 따른 두려움을 의미한다. 완벽추구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무 방대한 정보원 혹은 정보원의 선택, 모든 자료를 다 원하는 기대와 같은 것들이 도서관에서의 조사연구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근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불안까지도 관련이 되고 있다.

결국 도서관불안은 조사연구불안과 연결되어 과제를 계속 미룬다거나 자료 찾는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등의 증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조사연구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조사연구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불안에 대한 이해는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서관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감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게 될 때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이후로 지금까지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미 1992년에 Bostick에 의해 도서관불안척도까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대부분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도서관불안척도 개발 이전에 우선 국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올바른 요인 분석과 증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역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도서관불안 증상을 보이며 동일한 도서관불안 요인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도서관불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도서관불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도서관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서관불안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도서관불안의 요인은 무엇이며 증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도서관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1992년에 개발된 Bostick의 도서관불안척도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이용의 증가와 같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이 촉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상황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황적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된 도서관 규모의 경우, 미국과 국내 대학도서관간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서관불안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질적 요인 역시 미국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과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이 보여주는 도서관불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국내의 경우 해외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도서관불안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들과 도서관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불안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서관불안의 해소 또는 감소를 통해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이 이용될 수 있을 만큼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다면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위한 연구로 확대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관종별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일반불안이론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이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불안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 관련요인, 증상, 도서

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의 관계, 해소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의 모두 미국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인 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도서관불안 연구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이용자가 생각하는 사서의 이미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도서관불안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도서관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서관불안의 해소 혹은 감소 노력을 통해 이들의 조사연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전반적인 학문 역량 고취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 도서관불안 현황에 대한 분석과 도서관불안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권나현.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 29-47.
- 키에르케고르, 쇠렌. 1999. 『불안의 개념』. 임춘갑 역. 서울: 한길사.
- 프로이트, 지그문트. 1980.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황보석 역. 프로이트 전집, 12.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 한창환. 2001. 불안 개념의 역사적 고찰 『정신병리학』, 10(1): 3-14.
- 허창범. 2000. 불안이론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논문집』, 6: 251-26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82.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ostick, S.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of Wayne State University.
- Byrd, P. 1982. *A Descriptive Study of Mathematics Anxiety: Its Nature and Anteced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Indiana University.
- Cattell, R.B., & Scheier, I.H. 196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Neuroticism and Anxiety*. NY: Ronald Press.
- Endler, N., & Edwards, J. 1982. "Stress and Personality."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 Jiao, Q.G.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 Jiao, Q.G., A.J. Onwuegbuzie. and A.A. Lichtenstein. 1996.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2): 151-163.
- Jiao, Q.G., and A.J. Onwuegbuzie. 1997a.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Library Quarterly* 67: 372-389.
- \_\_\_\_\_. 1997b. Factors associated with library anxiety. Chicago: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March 24-28, 1997.
- \_\_\_\_\_. 1999a. "Is library anxiety important?" *Library Review*, 48(6): 278-282.
- \_\_\_\_\_. 1999b.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Vol. 48 No. 3, pp. 140-7.
- \_\_\_\_\_. 2001.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Urban Library Journal*. 11: 16-27.
- Joseph, M.E. 1991. "The care for library anxiety-it may not be what you think." *Catholic library World*, 63: 111-114.
- Keefer, J. 1993. "The hungry rats syndrome: Library anxiety,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academic reference process". *RQ*, 32: 333-339.
- Kuhlthau, C. 1988. "Developing model of the library search process: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RQ*, 28: 232-242.
- \_\_\_\_\_.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Maurer, M.M., and M.R. Simonson.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omputer anxiety.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Dalla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43 428).
- Mech, T.F., and Brooks, C.I. 1995. Library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7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Pittsburgh, March 30-April 2.
- \_\_\_\_\_. 1997. "Anxiety and confidence in using a library by college freshmen and seniors." *Psychological Reports*, 81: 929-930.
- Mellon, C.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 160-165.
- Spielberger, C.D. 1972. "Current trends in

-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p. 3-23.
- Onwuegbuzie, A.J. 1997. “Writing a research proposal: The role of library anxiety, statistics anxiety, and composition anxie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 5-33.
- Onwuegbuzie, A.J. and Jiao Q.G. 1997. “Academic library usage: A comparison of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6: 258-269.
- Sarason, I.G. 1980.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est anxiety.” in I.G. Sarason(Ed.), *Test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Hillsdale, N.J.: LEA. pp: 3-14.
- Zahner, J. 1993. Thoughts, feeling and actions: Integrating domains in library instr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New Orleans, January 13-17, 1993. Proceedings of Sel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esentations.